

찾아처럼 맑게 우리나라 스님의 음성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음 스님 ㉔

어느 날 한학자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전화가 왔다. “김 화백, 진짜배기 스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불법을 철저히 지키는, 스님 중에 스님이예요. 무엇이 자비로운지 어떻게 사는데 자유로운지 스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늦기 전에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어요?”

나는 청명 선생의 성격이 잘 알기에 무작정 스님을 만나 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체없이 중암을 찾았다.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직지사 중암은 적요했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작은 소리조차도 비밀이 없을 정도였다. 암자 주변엔 연꽃, 수련, 수국 등 온갖 꽃들이 지천이었다. 정성스럽게 절집 안팎을 보살핀다는 생각이 들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난을 돌려놓는 스님의 손길에서도 자상함이 읽혀졌다. 수행자라는 느낌보다 어진 이웃 할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먼저 다가왔다. 스님은 잘생긴 외모에 맑고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반겨 주셨다. 스님과 차를 마시는 동안 느낀 그분의 순한 기운은 첫 만남의 어색함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낮고 조용조용한 스님의 음성이 찾아처럼 우리나라.

나의 두 아이들이 절집 주변을 이리저리 뛰놀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자 풀숲에서 청개구리가 놀라 튀어나왔다. 스님께서서는 그 광경에 웃으시며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어린 시간으로 추억한다.

분위기가 편안해 질 즈음, 스님께 개인전 화집을 전해 드렸다. 스님께서서는 한 작품 한 작품을 정성스럽게 보시더니 ‘우리 딸 하운이’와 ‘어때! 시원하지?’라는 작품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다. 이 두 작품을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띠셨다.

스님은 ‘우리 딸 하운이’란 작품을 두고 “어린 아이가 변기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변을 보는 모습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며 “아이가 변비가 심한 모양”이라고 하셨다.

“아이의 표정을 좀 봐요.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표정에 잘 나타납니다. 얼굴빛이 어둡고 이는 꼭 깨물고 있어. 얼굴 표정이 문제가 아니네,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 목도 숙인채로 한 곳에 힘을 집중하고 있고, 손도 힘을 주고 있지만 발가락 끝을 오므려 붉은 변이 나올라 말라 한 그 순간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스님은 “화가의 관찰력이 특출하다”며 “이 그림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다. 절실함이 있으면 해결책도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딸 아이와 아이 귀지를 파내는 엄마 모습을 담은 ‘어때! 시원하지?’란 작품에 대해선 “어머니는 하나라도 더 파서 깨끗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아이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표정”이라며 “어머니와 딸아이를 통해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품에 대한 스님의 평가는 생활에 대한 통찰력이 실려 있었다. 대화 말미에 “생활이 예술이 되고 평범함이 특별하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스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고마웠다. 그 날 밤 내 작품에 대한 스님의 품평에 느낀바가 있어 자신을 경책하는 내용을 작업 노트에 적어 두었다.

“형상에 드리워지는 빛은 하나가 환영일 뿐이다. 일광(一光)은 일의(一意)가 아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의 외형일 뿐 명암이 저절로 뜻을 얻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 특히 인물화에서 대상의 명암을 제거하고 입체를 평면으로 압착해 가는 과정은 대상과 주체의 ‘시간성’과 ‘거리 지우기’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일방향의 ‘바라보기’와 ‘감흥하기’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말하고 바라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면성의 비밀이다. 평면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대척하고 있다기보다 께안고 있으며 이야기한다. 나는 이 평면성을 작품을 통해 끝없이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방문은 아버지를 모시고 놀러오라는 스님의 호의로 이루어졌다. 스님과 아버지는 대화가 참 잘 통했다. 대부분 이야기 주제는 ‘유학’으로, 스님의 박식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에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몸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스님과의 만남이 계속 될수록 스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미지는 갈수록 맑고 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해 겨울, 스님의 안부 전화에 다시 중암을 찾았다. 스님께서서는 나를 사랑스런 손자처럼 참 따뜻이 대해주셨고 다소 무례한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셨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닌, 스님의 또 다른 움직임을 보고 싶어 붓글씨를 부탁 드린 것이다. 스님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의미가 다른 여러 글귀를 써 주셨다.

박식함·혜안 속 깃든 따뜻함

마치 어진 이웃할아버지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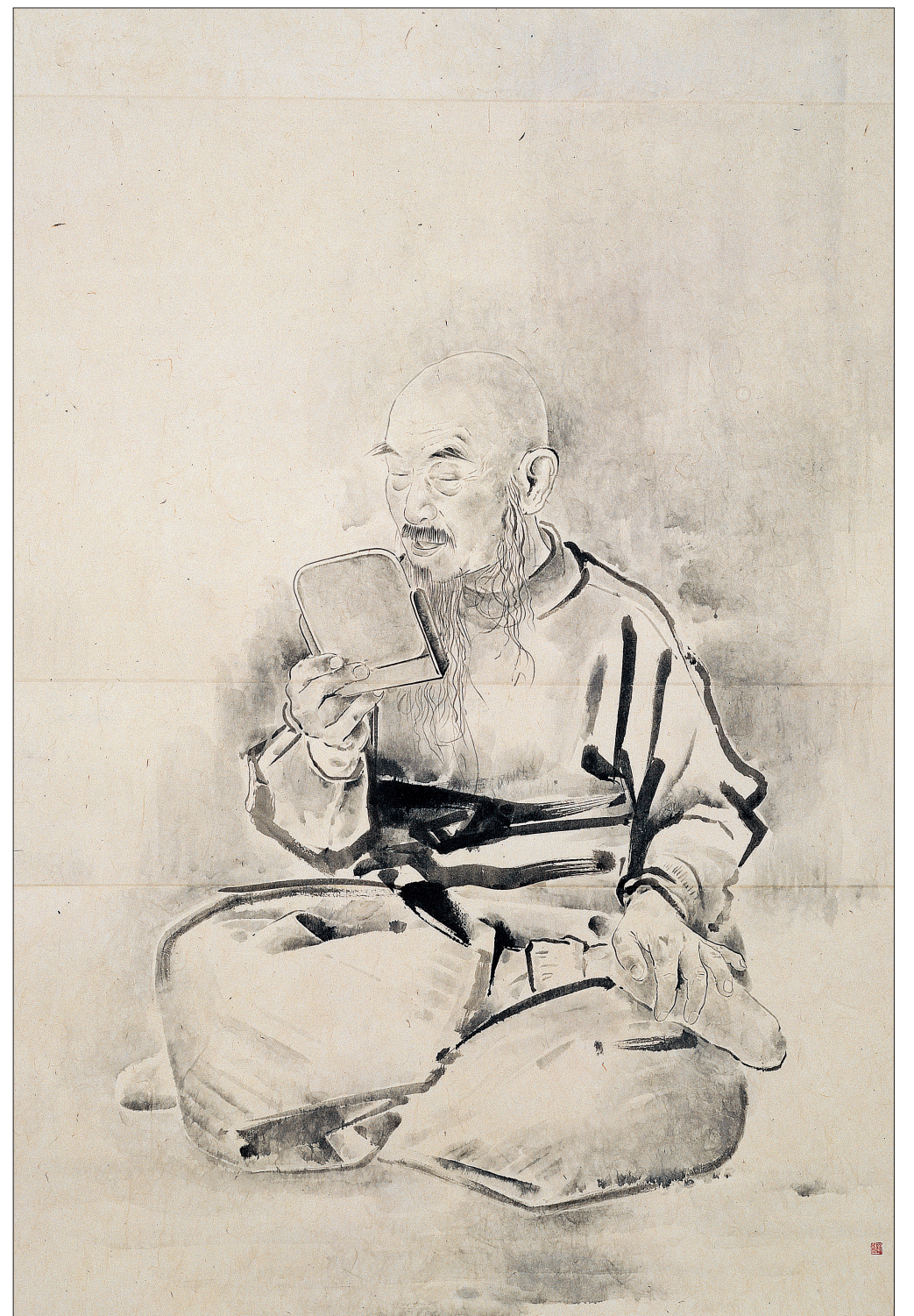
통찰력 담긴 스님의 작품평

“평범이 특별해지면 ‘힘’ 생긴다”

다. 하지만 당시 시자스님에게 들은 바로는 스님께서 휘호나 붓글씨 등을 남기시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다며 자신도 스님께서 글 쓰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무례한 부탁 덕분에 몇 십 점의 스님 필적이 중암에 남겨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날 저녁 스님께서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별채로 오셨다. 늦은 밤 군고구마를 가지고 오셔서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곤충과 새 등 동물에 대한 이야기다. 내 지식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이야기였으나 스님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동물 생태학을 꿰뚫고 계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으며 세상만물에 대한 스님의 애정 어린 시선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만남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 됐다. 만남은 주로 스님께서 거주하시는 요사채와 인근 정자에서 이루어졌다. 정자는 직지사 가람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대구 팔공산의 산자락도 한눈에 잡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방이 확 트인 공간에서 나는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스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스님이 지닌 인간애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스님의 삶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계속>



선-기억의 저편, 138x118cm, 종이에 수묵, 1997년, 작가소장. 선하고 따뜻했던 관음 스님의 삶을 보고 화폭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딸 하운이, 76x52cm, 종이에 수묵 채색, 1992년, 작가 소장. 관음 스님은 화집속의 '우리 딸 하운이'에 관심을 보이며 "절실함이 있으면 해결책도 생기지 않겠냐"는 법문을 주셨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칠성상회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p>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p>	<p>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33,000원</p>	<p>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 골드 한달분(80ml/60팩) 금액: 115,000원</p>
<p>말리 있어도 함께이며 미움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인 근조 완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100,000원</p>	<p>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어 카페트 매트 금액: 330,000원</p>	<p>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張泰相)님의 연구풍수학 연구의 필경 (무료배송) 금액: 35,000원</p>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놓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